

인도의 2012년 임금 12% 증가 예상

이순철 (부산외국어대학교 러-인 통상학부, 조교수)

작성일: 2012년 4월 8일

■ 인도의 기업 근로자들은 건조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로 2012년 평균 임금이 12%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됨.

- 임금조사 컨설팅 업체인 Mercer에 따르면, 자동차 부문의 임금은 14.3%, 그 다음으로 의류부문 12.8% 등 전체 임금이 평균 12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- 다른 임금관련 컨설팅 업체인 Ma Foi Randstad도 2012년 임금은 평균 11.2%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지난 4월 9일 발표함.
- 지난 2월 Aon Hewitt는 인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11.9% 달할 것으로 예상함.

<표 1> 인도의 부문별 임금 평균 증가율 추정 및 기대치

(단위: %)

분 야	2011.10-12월 추정평균증가율	2012.1-3월 기대평균증가율
은행, 금융, 보험	11.7	12.5
교육, 훈련 및 컨설팅	11.2	11.5
에너지	11.8	12.2
보건	16.1	16.0
병원	14.9	15.3
IT & ITES	15.9	18.5
제조업-기계 및 장비	10.4	10.9
제조업-비기계 제품	13.5	14.5
미디어 및 관련부문	15.3	16.7
의약품	16.8	15.6
부동산 및 건설	13.0	13.1
무역(소비자, 도매 및 서비스 포함)	14.4	15.9
수송, 저장 및 커뮤니케이션	12.4	11.1

자료: Ma Foi Randstad. 2012. Employment Trends Survey

■ Ma Foi Randstad에 따르면, 2012년 고용 증가율은 4.46%가 될 것으로

예상됨.

- 가장 높은 비중의 고용 증가 분야는 의약품 17.9%, 그 다음으로 부동산 및 건설 13.4%, 미디어 및 관련 분야 10.9% IT & ITES 10.8% 등의 순으로 나타남.
- 전반적으로 보건, 병원 분야의 고용 증가가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되며, 그 다음으로 IT 및 관련 분야 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.

<표 2> 인도의 2012년 분야별 기대 고용 증가율

(단위: 명, %)

	2011.12월 고용 수	2012.1-12월 기대고용 수	증가율
은행, 금융, 보험	968,055	71,605	7.4
교육, 훈련 및 컨설팅	9,886,593	87,290	0.9
에너지	924,528	30,208	3.3
보건	3,621,177	273,571	7.6
병원	6,309,121	230,213	3.6
IT&ITES	2,102,421	227,328	10.8
제조업-기계및 장비	1,190,736	59,180	5.0
제조업-비기계제품	4,662,741	163,075	3.5
미디어 및 관련	1,482,898	162,264	10.9
의약품	335,455	59,957	17.9
부동산 및 건설	988,815	132,906	13.4
무역(소비자, 도매 및 서비스 포함)	693,534	54,230	7.8
수송, 저장 및 커뮤니케이션	2,730,403	49,480	1.8
합계/평균	35,896,477	1,601,307	4.46

자료: Ma Foi Randstad, 2012. Employment Trends Survey

■ Mercer 보고서에 따르면, 인도 노동자들은 경제가 회복하게 되면 산업별 고용 경쟁이 심화되어 이직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- 인도 고용자의 54%가 2012년에 현재 직장을 떠나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음.
- 이에 따라 조사대상 기업들도 4개 기업 중 3개 기업이 고용자의 임금 인상을 대비하여 현재의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고 응답함.
 - o 조사기업 681개 기업 중에서 75%가 2012년 임금 상승에 대비하여 예산을 증액하였다고 응답함.
- Ma Foi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2011년 두 자리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해 임금을 두 자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함.

■ **제조업, 보험, 화학 분야의 기업 10개 중 8개 기업은 올해는 고용을 더 많이 할 계획이며, 거의 모든 기업들이 올해는 인원감축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응답함.**

- 조사 기업의 84%가 향후 12개월 동안 고용을 확대할 것이며, 단지 16%만이 새로운 고용 계획이 없다고 응답함.
- 특히 제조업 및 보험 관련 기업들은 신규 고용에 대하여 증가할 것임을 단언함.
- 다만 IT & ITES분야는 서구 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2011년 수준인 약 11%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
■ **전반적으로 2012년 인도의 임금은 12% 상승은 물론 고용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지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.**

-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인도의 임금 상승 및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됨.
-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새로운 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의 증가와 더불어 노동자들의 이직할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근로자 확보에 대한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■ **따라서 2012년에 임금 인상 및 이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.**

- 우선 임금인상에 대한 예산 마련은 물론 새로운 고용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.
- 이와 더불어 기존의 근로자들의 이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됨. 가령 직책이동기회(job-rotation opportunities), 경력관리프로그램(career management program) 등을 준비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.
- 특히 인도 근로자들이 경력 관리에 관심이 많은 만큼 새로운 경력 관리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됨.